

GS그룹, 출범 1년 현장경영 “박차”

허창수 회장, GS EPS 당진발전소 방문 ... 비전 달성위한 역할 강조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GS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룹의 비전 달성을 위한 현장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S그룹은 허창수 회장이 김기영 연세대 경영학과 석좌교수,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진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등 4명의 GS홀딩스 사외이사들과 함께 4월 21-22일 GS EPS 당진발전소를 방문했다고 4월23일 발표했다.

허창수 회장은 “GS EPS 2호기 건설과 관련해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Value No.1 GS 비전에 걸맞게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 EPS는 정부의 민자발전 계획에 따라 1996년 7월 국내 최초의 천연가스(LNG) 분야 민자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으로 GS가 2005년 11월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전략 달성을 위해 LG상사로부터 인수했으며, 현재 충남 당진 부곡공단에 538MW 1호기 발전소에 이어 같은 생산규모의 2호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허창수 회장은 2006년 초부터 경영방침으로 밝힌 비전 달성을 위한 성장 역량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월 GS 신년모임에서 “성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한편 경쟁자에 앞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더 연구하고 실천하는 조직 및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 GS 임직원이 돼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 4월19일에는 분기별로 계열사 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S 임원 모임을 주재하며 “3월31일 CI 및 경영이념 선포 1주년을 맞이했는데 다행히 2005년 성공적으로 그룹을 출범시켰다”고 소감을 피력한 뒤 그룹의 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들의 역할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GS 관계자는 “허창수 회장의 현장 경영은 2005년 계열분리 이후 경영이념과 비전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의 중기목표를 확정한 데 이어 철저히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25>